

“바흐 작품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클래식 聖典”

바흐 앨범으로 1,2위 석권 피아니스트 디너스틴

피아니스트 시모나 디너스틴에게 바흐는 각별하다. 2007년 무명의 연주자였던 그를 스타덤에 올린 앨범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비를 털어 제작한 이 음반은 발매 첫주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랐고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등의 ‘올해 최고 앨범’에 뽑혀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 내놓은 메이저 음반사(소니 클래식) 데뷔 앨범 ‘바흐: 이상한 아름다움(A strange beauty)’에도 바흐의 작품을 수록했다. 이 음반은 현재 미국 아마존의 클래식 부분 음반 판매 순위 1위에 랭크됐다. 그의 전작인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당달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신문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흐는 연주할 때나 감상할 때나 좋아하는 작곡가”라며 “그의 작품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엄청난 성전”이라고 말했다.

이런 음반 제목을 ‘이상한 아름다움’이라고 한 것은 바흐의 다른 면모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종종 바흐를 엄격한 규칙과 수학적인 정확성을 지닌 음악가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흐에게 강렬하게 끌렸던 것은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바흐의 ‘변칙적인 섹스(downbeat)’과 예상치 못한 하모니, 독특한 프레이징 등이 그를 새로운 영감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이다. 새 앨범에는 ‘건반 협주곡 1번과 5번’ ‘영국모음곡 3번’ ‘주 예수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자, 기뻐하라 사랑스런 주의 성도들이여’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등을 담았다.

“이번에도 바흐 작품의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다른 형태로 해석된 그의 음악을 연주하려고 했죠. ‘주 예수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등은 원래 성악곡이며 칸타타 형식으로 시작됐지만 바흐에 의해 오르간 연주 형태의 즉흥곡으로 바뀌었어요. 20세기 이후 피아니스트들이 이 작품들을 피아노 연주곡으로 다시 편곡했죠. 즉 원본에서 두 번이나 바뀐 겁니다. ‘건반 협주곡’도 사실 다른 악기를 위해 작곡됐죠. ‘영국모음곡’도 원래 협주곡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는 건반만의 연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주곡을 연주할 땐 유기적인 움직임을 느끼도록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홀로 연주할 때는 미묘한 변화를 유려한 감성과 함께 특유의 리듬과 프레이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향악단과는 이 작업이 무척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의 작업은 매우 훌륭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호흡을 이뤘죠.” 그는 워싱턴 케네디센터, 런던 위그모어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아스펜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 무대와 음악 축제 때에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골드베르크...로 스타덤 올리는 ‘이상한 아름다움’ 내놔 슈베르트 곡 담은 음반도 구상

“음반을 만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저는 그때 비즈니스로 녹음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연주를 만족스럽게 들었던 친구들이 저만의 해석이 담긴 음악을 녹음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상업적 인 성공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



자비로 만든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피아니스트 시모나 디너스틴이 메이저 음반사에서 새 앨범 ‘바흐: 이상한 아름다움’을 냈다. 그는 “바흐의 매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생겼죠. 이번 음반 발매를 포함해서요.” 현재 슈베르트와 슈만 작품 연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는 “두 작곡가의 음악 세계에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 앨범은 바흐와 함께 슈베르트의 곡을 담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티프트 메릿과의 보기 드문 연주회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생겼죠. 이번 음반 발매를 포함해서요.” 현재 슈베르트와 슈만 작품 연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는 “두 작곡가의 음악 세계에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 앨범은 바흐와 함께 슈베르트의 곡을 담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티프트 메릿과의 보기 드문 연주회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생겼죠. 이번 음반 발매를 포함해서요.” 현재 슈베르트와 슈만 작품 연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는 “두 작곡가의 음악 세계에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 앨범은 바흐와 함께 슈베르트의 곡을 담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티프트 메릿과의 보기 드문 연주회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남자로 변신한 오이디푸스..잘 익은 비극 연기에 전율

Review 연극 ‘오이디푸스왕’

“아침에는 아버지를 먹고, 한낮에는 어머니를 먹고, 저녁에는 제 두 눈을 파먹고 헤메는 짐승, 바로 나, 오이디푸스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손, 진실이란 그 무엇 하나 볼 수 없던 이 두 눈을 찢은 손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손이다.”

무대에는 9m 이상의 절벽이 수직으로 서 있다. 위에는 가시 같은 70개의 봉이 불규칙적으로 쏘여 있다. 그 사이를 오가며 흰 분필로 그려낸 민중의 얼굴이 관객을 슬프게 바라본다. 극이 진행되면 그 눈에서 흰 눈물이 흘러내린다.

무대는 뒤쪽이 솟아 있다. 가파른 수직 무대에 위태롭게 매달린 시민 5명은 봉 사이를 오가며 울부짖는다. “배고프다, 살고 프다...” 저주받은 도시, 테베의 모습이다.

한태숙 연출가는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왕(사진)’을 2011년 1월 명동예술극장에서 부활시켰다. 원작과 다른 점은 왕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 오이디푸스를 보여주려 한 것.

테베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오이디푸스왕에게 크레온은 태양신의 신탁을 전한다. “전왕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 처형하라.” 오이디푸스는 전왕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예언자 테레시아스를 찾는다. 오이디푸스의 기대와는 달리 예언자는 ‘당신의 적은 바로 당신’이라는 말만 남긴다. 예언자의 불길한 저주를 듣고 격노한 왕은 ‘나는 누구인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때 등장한 왕비 요카스타(서이숙분)



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점점 더 깊은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다. 왕비와 늙은 양치기로부터 들은 그의 출생에 얽힌 비밀, 예언자의 불길한 이야기가 하나로 꿰어지며 비로소 저주받은 삶의 의문이 풀린다. 괴로워하는 오이디푸스의 다리 사이로

무대 바닥에 세 갈래 길이 그려진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곳이자 운명을 피해 도망치던 그 길 위에 서서 오이디푸스는 절규한다. 비극의 정점이다.

“아, 잔혹하다. 신이여, 남편에게 남편을 자식에게 자식을 낳아주게 하디나...” 10여년 전 ‘내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는 아들, 두 발목을 묶어 절벽으로 던져버렸던 왕비 요카스타는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붙잡고 울부짖는다.

원전의 오이디푸스가 저주받은 삶을 초인적 의지로 헤쳐간다면 이 작품의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두 눈을 찢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영웅이 아닌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예언자 테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얘기하듯 ‘두 눈을 뜨고 있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무 힘도 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랐다.

‘오이디푸스’는 재단법인 국립극단(예술감독 손진택)의 창단작품이다. 또렷한 발성과 울림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연극계의 대모 박정자씨와 오이디푸스역의 이상직씨, 크레온 역의 정동환씨와 요카스타역의 서이숙씨 등의 잘 익은 연기는 맨 뒷좌석 관객까지 빨아들인다.

오브제 연출가 이영란씨가 수직의 판 위에 67개의 인물을 백묵으로 그려내고, 현대무용 안무가 이경은씨는 몸의 비명을 춤으로 표현한다. 작곡가 원일씨는 북과 거문고와 아쟁 등 전통 악기만으로 비탄의 음악을 웅장하게 그려낸다. 생략과 압축의 묘미에 원숙미까지 겸비한 작품이다. 내달 1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KBS 1	KBS2	MBC	SBS	EBS	EBS플러스1
00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00 뉴스투데이	00 출발 모닝와이드	00 세계테마기행+ 40 한국기행	40 이은주씨의 예비 고2수학Ⅱ
50 인간극장		50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00 오리버전 30 세계 자연문화유산 35 블긴머리 열	30 예비 고3외국어 영역1
25 아침마당	00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정미의 전쟁	00 임종영 유거영 20 국민행 아이쿠 30 냉정고나라 코코몽 45 방귀대장 뽕뽕이	20 예비 고3외국어 영역2
30 뉴스	00 희망열라이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50 여유만만	30 뉴스 45 기쁜 날	20 좋은 아침	00 올리비아 15 학회특별취학턴 도전 황금배지 25 고민있어요 하나아름다 35 두근두근 신나는 뒷마당 50 뼈백에 친구	10 예비 고3외국어 영역3
00 생활경제		55 매일일일연속극 폭풍의 연인	40 뉴스	00 10시 뉴스 10 60분 월드컵 10 최고의 요리비결 40 교육 초대석	00 이하영영의 예비 고2 수학 I 50 광의 월드컵
00 그 사람이 보고싶다	00 지구촌 뉴스 20 예TV특강	30 매일일시트콤 동방 내 사랑	00 생활경제	00 뉴스 25 TV속의 TV	20 예비 고3영어 영역1
00 뉴스12	20 매일일 연속극 못타라 동해야 (77-78회)	00 뉴스 25 TV속의 TV	00 뉴스 5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최고의 교사	10 예비 고3영어 영역2
00 열린재널 30 제타극 천자문	05 현대극장 투키소 언행하세요 40 MBC 50주년 나눔(맛있는 나눔, 1000원의 약속)	25 신바람 장터 우리 땅 우리 명품 40 MBC 50주년 나눔(맛있는 나눔, 1000원의 약속)	30 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00 제TV생생대학 50 희망종영	00 이하영영의 예비 고2수학 I 50 빛와저는 것들Ⅱ 30 제이하영영의 예비 고2수학 I 50 문학사랑 55 클리 사이언스
05 재벌은말 고운말 10 한국 현대사 증언 TV사서전	00 뉴스타임 05 재경이 꿈야 35 TV유지원	00 뉴스 10 우리아이 미래발전 재능 무한대 40 TV발상 우리가 식교실	00 뉴스 00 꿈야 스포츠	00 영어 유치원 요 가바가바 50 율리야 카키	00 제이하영영의 예비 고2 수학 I 50 학습자료실 문학사 55 북 다이제스트
00 오늘의 경제 10 네트워크 특선	05 재벌은말 고운말 05 재경이 꿈야 35 TV유지원	00 뉴스 10 우리아이 미래발전 재능 무한대 40 TV발상 우리가 식교실	00 예니켈러리 30 물은 생명이다	00 레온 05 치료와 친구들 20 우리는 긴급 구조대 30 재도모바를 찾아라 40 헬로코리올 50 통조림의 모험	00 제이하영영의 예비 고2 수학 I 50 학습자료실 문학사 55 북 다이제스트
00 뉴스5 20 ABU국제동맹체 다큐 CARE 40 재세상은 넓다	05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10 MBC 50주년 나눔(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	00 뉴스파라이드 30 날씨와 생활 35 생방송 투데이	15 워드 월드 40 리틀 아인슈타인	00 제극정원생의 수학2 50 재학자료실 수학사 55 3분 VOCA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5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00 뉴스 10 파워메가진 50 공감 특별한 세상 45 일일 시트콤 동방 내 사랑	30 귀농 프로젝트 농비어런가	05 생방송 특목 보디하니	00 제극정원생의 수학3 50 재학자료실 가는 것들Ⅱ
00 뉴스데스크 30 세상은 이야기	00 뉴스타임 05 유적뱅크	15 일일 연속극 폭풍의 연인 50 뉴스 데스크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05 밀로와 스티피 30 로보파워	00 예미비고3영어 영역1 50 문학사랑 55 클리 사이언스 55 3분 VOCA
25 일일연속극 못타라 동해야	25 생생 정보통	15 일일 연속극 폭풍의 연인 50 뉴스 데스크	00 8뉴스 45 스포츠 뉴스 50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00 최고의 교사 20 뉴스 45 재지식재널e 45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영의	00 예미비고3영어 영역2 50 클리 사이언스 55 재학자료실 문학사 55 3분 VOCA
00 뉴스9	40 스포츠 타임 50 스포츠 0	45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55 긴급출동 SOS 24	40 희망종영	00 예미비고3외국어 영역1 50 재학자료실 문학사 55 북 다이제스트
00 소비자 고발 45 세계는 지금	50 뉴스타임 55 VJ특공대	55 MBC 스페셜 2011신년특집 (안철수와 박경철)		40 희망종영	00 예미비고3외국어 영역2 50 클리 사이언스 55 재학자료실 문학사 55 3분 VOCA
00 뉴스라인 40 미디어 비평	05 금요기획	50 2011AFC 아시안컵 축구 3.4위 전	05 스타 부부쇼 자기야	10 시내미 천국	00 예미비고3외국어 영역1 50 재학자료실 문학사 55 북 다이제스트
10 TV 미술관 ※1-10 독립영화관(도쿄특시)	05 유희열의 스케치북 40 드라마 스페셜 특별수사대 MSS		15 시사토론 45 나이트 라인 ※01-00 게임쇼 즐거운 세상	00 재지식재널e 05 공주의 왕도 20 지식재널 e워클리 30 스페이스 공감	00 예미비고2영어 영역1 50 예비 고2영어 영역2

한국경제TV	한국직업방송
04:00 대박 파트너스 05:30 국토부 투자의아침	06:00 창업컨설팅 1357 특공대 07:00 백수잡담
08:00 출발 증시특급 10:00 미켓포킹	08:00 디류드라마 학이시습 09:00 잡 투데이
12:00 정오의 증시데이트	10:00 오늘의 채용정보 11:00 TV공개채용
13:00 성공투자 오후중시	12:00 데일리 채용속보
15:00 오늘시황&내일전략 16:00 증권금융뉴스	13:00 직업채용 미래를 향한 도전
16:30 기업뉴스 17:00 창업정보센터	14:00 백수잡담 15:00 김성스토리 행복한 도전
18:00 백수 Job담	16:00 잡 투데이 17:00 오늘의 채용정보
19:00 TV공개채용 19:30 잡투데이	18:00 리더십스쿨 19:00 TV공개채용
20:00 소상공인 플러스 pm8	20:00 창공의 이색직업
20:30 박정연의 더 리더스	21:00 일자리 창출 화창 중소기업
21:00 대박타임 매직 23:00 시금치	22:00 잡 투데이 23:00 백수잡담
24:00 밤을 잊은 투자자들파	25:30 일하는 대한민국

※TV프로그램 일부는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미술품 쇼펍 잔치 내달 11~14일 화랑미술제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나들이를 겸해 ‘그림쇼펍’을 즐길 수 있는 화랑미술제가 내달 11~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화랑협회 소속 66개 화랑이 출품한 국내외 인기 작가 400여명의 작품 30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화랑인 갤러리 현대는 김창열씨의 물방울 그림, 김종학씨의 설악산 풍경 등 30여점을 내건다. 선화랑은 이숙자씨의 보리밭 그림, 진명자씨의 파리 풍경화, 박은숙씨의 추상화 등을 출품한다.

국제갤러리는 사진 작가 구본창씨를 비롯해 이기봉 김홍석 양해규 정연두씨 등 국내 작가와 도널드 지드, 루이스 부르주아, 빌 비올라, 알렉산더 말더, 조르안 오프 등 서양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나아트갤러리는 고영훈 배병우 황재현 유승호 도성욱 지용호 황선태 아트뉴스의 근작 30여점을 내놓는다. 노화랑은 ‘사과 작가’ 윤병락씨와 ‘얼음 작가’ 박성민씨의 2인전으로 꾸민다.

학교재화랑은 제주의 풍경을 감칠맛나게 그리는 강요배씨를 비롯해 사진 작가 김이타씨 등 10여명의 작품 30여점을 소개한다. 아트싸이트는 박선기 이재삼 윤종석 신수혁씨, 금산갤러리는 김성남 최영돈씨의 작품을 출품한다. 크라운·해태제과에서 지원하는 작품전과 아울러 평론가 박종호씨의 강연이 진행된다. 관람료는 학생 8000원, 어른 1만원. (02) 733-3706 김광자 기자 kkk10@hankyung.com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언론사 영화담당 기자들이 뽑은 ‘2010 올해의 영화’로 선정됐다.

‘시’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남자배우상은 지난해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작을 낸 ‘아저씨’의 원빈, 여자배우상은 관객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됐던 장철수 감독의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에서 호연한 서영희가 각각 받았다.

오브제 연출가 이영란씨가 수직의 판 위에 67개의 인물을 백묵으로 그려내고, 현대무용 안무가 이경은씨는 몸의 비명을 춤으로 표현한다. 작곡가 원일씨는 북과 거문고와 아쟁 등 전통 악기만으로 비탄의 음악을 웅장하게 그려낸다. 생략과 압축의 묘미에 원숙미까지 겸비한 작품이다. 내달 1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OCN	SBS골프
04:00 인베드 05:30 리플레이스	08:00 동계특집 SBS골프아카데미 왕초보 프로젝트
07:40 쓴다 10:00 CSI MIAMI 시즌4	12:00 2011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14:30 더 록 17:10 에어포스 원	16:30 2010 롯데카드 스타미쉬 아마추어 골프
20:00 매트릭스 2 리로드	18:40 2011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 Catch On	● 내셔널 지오그래픽
08:15 집 나온 남자들 10:05 테이킹 우드스탁	08:15 누가 고릴라를 죽였는가
12:10 들어는 봤니 모건 부부	10:00 나비비 사막의 미케터 가족
13:55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6:00 TV 동물농장
18:00 옛지 오보 디크니스 20:00 포화속으로	18:00 대결!회색곰vs늑대 22:00 갠지스
● tvN	● 국군방송
09:00 tvN E news 10:00 최성인 X-파일	09:10 바른말 고운말 12:00 국방뉴스
12:00 플라코스터 13:00 파라다이스 목장	13:00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15:30 M 스페셜
15:00 현장토크쇼 TAXI	16:30 미 공군 생활훈련 SREP 17:00 국방포커스
20:30 카라의 이중생활 22:10 생초리	18:00 네이비 다이빙 in 오스트레일리아